

지향성 이론 정초의 시각에서 보는 브렌타노

김 영 진

주제분류 심리철학, 현상학, 현대철학

주요어 지향성, 일반 지향성 이론, 브렌타노

요약문

브렌타노의 지향성관은 낡은 것이며 심지어 부적절하다는 주장에 대비되어 이 논문에서 필자는 브렌타노의 지향성 이념을 어떻게 대면하고 이해하고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가 한 일반 지향성 이론을 구성하는 일의 기본 토대와 틀을 실질적으로 결정한다는 견해를 취한다. 이는 지향성 이론을 정립하고자 하는 철학자들이 그 자신의 고유한 방식과 시각에서 브렌타노의 지향성관을 주의 깊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그 점에서 본 논문의 작업은 브렌타노의 지향성 이론이 진정 설득력이 있는지 또는 그렇지 않은지를 직접적으로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반 지향성 이론의 정초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의 이론의 중심 맥락을 비판적이면서도 반성적으로 재조명하는 것이다. 필자는 그 일을 브렌타노의 저서 『경험적 관점으로부터의 심리학』에 나타나 있는 유명한 지향성 구절에 관련된 일단의 이론적으로 결정적인 물음들을 정식화함을 통해 수행한다.

1. 들어가는 말

서양 현대 철학에서 정신의 지향성 문제는 현상학과 분석철학 양 진영에서 다소 독립적인 철학적 동기에 의하여 각기 연구되어왔다.¹⁾ 특기할 만한 점은, 정신의 지향성에 관한 철학적 탐구와 관련하여 그 두 철학적 전통은 실질적인 상호 협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심지어 서로의 통찰과 탐구 결과를 이론적 시각에서 진지하게 참조하지도 않는 것 같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 철학 사조 모두 그들이 다루는 연구 주제의 시원이 19세기 오스트리아의 철학자 프란츠 브렌타노(Brentano, Franz 1837-1917)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 우리가 곧 볼 것이지만, 그 사실은 한갓된 역사적 자취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그러한 한 그 두 철학 진영 양쪽 모두, 적극적인 방식에서든 아니면 소극적인 방식에서든, 정신의 지향성 논의에 관련하여 브렌타노에게 어떤 철학적인 빛을 지고 있다.²⁾

1) 필자는, 정신의 지향성 문제에 대한 현대 철학에서의 접근 방식과 관련하여 의견 상 상이한 그러나 궁극적으로 상호 관련하는 두 가지 입장이 있다고 본다. 그 하나는 지향성을 ‘심적 또는 언어적 지칭 활동의 토대’로 보는 관점이며, 다른 하나는 지향성을 ‘인지 주체의 행위와 행동을 설명하는 원리’로 간주하는 관점이다. 지향성 일반을 이해하는 방식과 관련하여, 전자는 이른바 전통적 입장이며 후자는 소위 1950년대 인지혁명 이후 대두된 새로운 시각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대륙철학에서의 지향성 이념은 전자에서 출발했으며, 분석철학에서의 지향성 이해는 인지과학과 심리철학의 발달이라는 배경 하에서 후자가 그 주축을 이루고 있다. 물론 분석철학 진영 내에서도 몇몇 주요한 철학자들-예컨대 치즘(Chisholm, Roderick 1916-1999)이나 서얼(Searle, John 1932-)은 지향성을 보다 더 전통적인 방식으로 이해한다. 지향성 문제에 접근하는 그 두 가지 방식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관한 명료한 이론적 고찰은 지향성 이론가들에 의하여 충분히 수행되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해 지향성 이해에 관한 그 두 관점 사이에는 여전히 어떤 이론적 간극이 존재한다.

2) 브렌타노의 직접적 제자인 마이농(Meinong, Alexius 1853-1920), 후설(Husserl, Edmund 1859-1938), 트바도브스키(Twardowski, Kazimierz 1866-1939) 등이 지향성 문제를 논의할 때 그들은 브렌타노 지향성 이론의 영향을 분명히 인정한다. 분석적 전통에서 예컨대 필드(Field, Hartry 1946-)는 그의 논문 「심적 표상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더 놀랍고 주목할 만한 일은 많은 철학자들이 브렌타노의 지향성 이념을 충분하고 적절하게 재검토하거나 재평가함이 없이, 말하자면 그의 주저 『경험적 관점으로부터의 심리학』의 그 유명한 지향성 구절을 불필요할 정도로 지나치게 자주 인용하는 일만 제외하고서, 사실상 매우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필자가 보기에 이는 브렌타노의 지향성 이념에 대한 일부 철학자들의 몰이해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필자는 우리가 브렌타노의 지향성 이념을 어떻게 대면하고 이해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보다 더 적절한 지향성 이론 정립의 토대와 틀이 실질적으로 결정된다고 본다. 심지어 필자는 지향성을 탐구하는 철학자라면 누구든 브렌타노가 제시한 지향성의 이념을 적어도 자신의 고유한 **관점**과 **방식**에서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 본 논문의 목적은 역사적 잔존물로서의 브렌타노 지향성 이념의 타당성을 해석하고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반 지향성 이론의 틀을 정초하는 일과 관련하여 브렌타노의 지향성관이 **어떤 방식에서** 그 이론적 의의를 드러낼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³⁾ 그 점에서 필자는, 브렌타노의 지향성 이념이 지향성 이론 일반의 확고한 정립에 긴밀하게 관여하는 기본적 이론 조건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방식에서 그 궁극적 의의가 드러난다고 주장한다. 이 결론에 도달할 목적으로 필자는 먼저 통상적으로 이해되는 지향성의 개념을 검토하면서 그에 관련한 브렌타노의 지향성 입론을 제시한다. 이어 필자는 그 입론에 대한 가장 거대한 오해-즉 브렌타노 지향성 이념에 대한 콰인(Quine, Willard van Orman 1908-2000)의 비판-의 명과 암을 밝힌다. 그러면서 필자는 브렌타노의 주요 저작 『경험적 관점으로부터의 심리학』에서의 지향성 구절을 다각적

(Mental Representation)」에서 브렌타노의 지향성관을 그 주요한 화두로 삼아 그의 표상 이론을 전개하고 있다.

3) 이 측면에서 이 글은 엄밀한 의미에서의 논증적(argumentative) 논문도 아니고 해석적(interpretative) 논문도 아니다. 이 글에서 필자는, 지향성 연구자로서, 브렌타노 지향성 이념의 몇몇 양상들에 대한 일단의 이론적 고찰과 소견(remarks)을 제시한다.

인 방식에서 토의한다. 이 모든 과정에서 필자는 브렌타노의 지향성 이념이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주로 어떤 방식으로 이해되어 왔는지 그리고 그것이 미래에는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철학적 소묘를 시도한다.

2. 지향성 - 그 일반적 특징

논의의 편의상 우리가 우선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은 브렌타노의 지향성 이념과 현재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향성 개념이 전적으로 동일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는 그 둘에 결부된 철학적 차이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먼저 현대 철학자들이 일반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지향성 이념을 고찰하고, 그런 뒤 브렌타노의 지향성관을 논의하도록 하자.

지금 당신이 ‘숙희’라는 이름을 가진 인물을 애인으로 두고 있다고 가정하자. 그러면서 다음 사례들을 고찰해 보자: (1) 숙희와 만날 때 당신은 그녀를 본다. (2) 때때로 당신은 숙희의 얼굴을 상상한다. (3) 숙희가 당신 곁에 한참동안 부재할 때 당신은 그녀를 그리워한다. (4) 당신은 숙희가 당신의 훌륭한 배우자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5) 숙희를 사랑하는 당신은 그 인물을 지칭하는 ‘숙희’라는 국어 문자 나아가 ‘Sook-Hee’라는 영어 문자 또한 소중하게 여긴다.

위에 나타난 ‘봄’, ‘상상함’, ‘그리워함’, ‘믿음’, ‘소중히 여김’ 등은 모두 이른바 심적인 작용(acts) 또는 상태(states)이다.⁴⁾ 우리는 그러한 심적

4) 어떤 철학자들은, 전문적인 지향성 이론의 관점에서, 심적 작용(mental act)과 심적 상태(mental state)를 구분한다. 전자에서는 심적 사건의 동태적(動態的 dynamic) 성격이 강조되고, 후자에서는 그것의 정태적(靜態的 static) 성격이 강조된다. 필자는 그 구분을 부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글에서 필자는 그 둘 모두가 정신의 지향성의 양식(form)이라는 의미에서 그 둘을 명시적으로 또렷하게 구분하지는 않을 것이다.

작용이나 상태를 지향적 상태라고 부른다. 정확히 어떤 의미에서 그러한가? 이 물음에 좀 더 분명하게 답해보자:

먼저 (1)의 경우, 숙회를 보는 당신의 시각 상태는, 만일 그때 당신의 시각 기관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면, 그 시각 상태 자체와는 다른 그 무엇-즉 숙회라는 인물-에 향해 있다.⁵⁾ 이후에 우리가 브렌타노의 지향성 이념을 논의할 때 다시 언급하겠지만 이 경우 당신이 일차적이고 직접적으로 지각하는 것이 당신 의식 속의, 숙회의 표상(representation)-즉 당신의 정신 혹은 두뇌 속에서 나타나고 재현되는, 숙회의 상-인지 아니면 당신의 의식 밖에 존재하는 숙회라는 인물 자체인지에 대해서는 거대하고 복잡한 철학적 논란이 있다.⁶⁾ 하지만 적어도 상식적인 관점에서 고려할 때 위의 경우 당신의 시각 경험의 대상이나 표적이 ‘숙회’라고 불리는, 살과 뼈로 이루어진 구체적인 개별자라고 간주하는 것이 터무니 없는 일은 결코 아닐 것이다.

(2)의 경우는 어떠할까? 말하자면 당신이 숙회의 얼굴을 상상할 때 당신의 상상 상태는 무엇에 향해 있는가? 그것은 아마도 궁극적으로는 숙회라는 인물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상상의 경우 당신이 직접적으로 지각하는 것은 당신의 의식 속에서 상상된 숙회의 얼굴이며, 그녀의 얼굴은 당신이 상상하는 바로 그 순간에 당신의 의식 바깥에 현존할 필요가 없다. 여기에서 그 상상 상태가 일차적으로 향해 있는 것은

5) 지향성 이론의 관점에서 ‘심적 상태가 (무엇에)향해 있다(is directed toward something)’는 것은 ‘심적 상태가 (무엇에)관함(about something)’ 것이라는 의미이다. 이 점에서 우리는 특수한 철학적 개념으로서의 ‘지향성(intentionality)’을 ‘정향성(directedness)’, ‘방향성(directionality)’, 또는 ‘(무엇에) 관함(aboutness)’이라고 특징짓는데, 이들은 서로 대체 가능한 개념들이다. 그들 중 가장 이론 중립적인 개념은 ‘(무엇에) 관함(aboutness)’이다. 아쉬운 점은 영어 표현 ‘aboutness’에 대한 보다 더 적절한 한글 번역어가 없다는 것이다.

6) 주지하듯이 데카르트(Descartes, René 1596-1650)로부터 칸트(Kant, Immanuel 1724-1804)에 이르는 근세 인식론에서 지각의 본성에 관한 물음은 바로 이 문제를 다루었다. 특기할만한 점은, 근세 철학자들의 경우 중세 철학자들과는 사뭇 달리 그 물음을 다루는 데 있어서 ‘정신의 지향성’ 개념이나 용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숙희라는 인물 자체라기보다는 숙희라는 인물이 당신의 정신 속에서 상상되어 나타난 특정한 상 혹은 모습이다. 이 점은 다음 경우와 비교할 때 더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이제 (3)의 경우에서, 당신이 숙희라는 인물을 그리워할 때 그 그리움은 정확히 무엇을 향해 있는가? 상상의 경우와는 사뭇 달리 이때 당신의 심적 상태가 지향하는 것은 당신의 정신이나 의식 속에 내재하는 숙희의 상이나 모습이 아니다. 이 경우 만일 ‘그리움’이라는 심적 상태가 지향하는 대상이 의식 속에 내재하는 것이라면, 당신은 그 그리움의 대상을 굳이 그리워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의식-내재적 대상은 당신의 정신이나 두뇌 속에서 이미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는 그리움이라는 지향적 작용의 특성을 반영하는 매우 의미심장한 사실이다. 요컨대 위 사례에서 당신의 그리움의 대상은 당신의 의식 바깥 어딘가에 존재하는, 혹은 이 세상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르는, 숙희라는 인물이다.

그러면 (4)의 경우를 검토해 보자. 거기에서 당신은 숙희가 당신의 훌륭한 배우자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그 경우 당신의 믿음은 정확히 무엇을 향해 있는가? 논의의 목적상, 숙희라는 인물이 애인으로서는 괜찮을 지라도 배우자로서는 사실상 부적격하다고 하자. 이를테면 그녀는 당신의 수입으로 감당할 수 없는 아주 심한 사치벽과 낭비벽을 갖고 있다고 가정하자. 여기서 주목할만한 점은, 비록 숙희라는 인물이 그녀의 심한 낭비벽 때문에 지금 당장 훌륭한 배우자가 못 될지라도 여전히 당신은 그녀가 당신의 훌륭한 배우자가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당신의 믿음이 향해 있는 것 즉 당신의 믿음의 대상은 ‘숙희가 훌륭한 배우자가 될 것이다’라는 명제이며, 그 명제는 어느 한 가능한 사태를 나타낸다. 명제에 대한 이러한 심적 관여(commitment)를 지향성 이론의 용어로 표현하여 명제 태도라고 부른다. 요컨대 우리의 심적 상태는 어떤 현실적인 혹은 가능한 사태를 나타내는 명제에 관한 것일 수 있다.

끝으로 (5)의 경우를 살펴보자. 거기에서 당신은 ‘숙희’라는 국어 문자 나아가 ‘Sook-Hee’라는 영어 문자를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가? 그 이유는 간단하다. 하지만 매우 중요하다. 말하자면 그 경우 ‘숙희’ 또는 ‘Sook-Hee’라는 특정한 언어 기호는 바로 숙희라는 인물을 지시하고 있으며, 그러한 한 그것은 그 특정한 개별적인 인물에 관한 것이다. 다시 말해 당신이 숙희라는 인물을 부를 때 그리고 그 인물에 관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때, 통상적으로 당신은 ‘숙희’라는 언어 기호를 발화하고 사용함으로써 숙희를 가리키는데, 거기에서 그 언어 기호는 당신의 애인 숙희에 **관한** 것이다. 이 측면에서 ‘숙희’라는 국어 단어 나아가 언어 일반 또한 지향성을 갖는다. 지향성은 정신뿐만 아니라 언어가 지닌 특성인 것이다. 물론 언어의 지향성은, 언어 사용 주체들이 소유하는 정신의 지향성에서 기인한다는 점에서, 이차적이고 파생적(derivative)이다. 하지만 그런 형태의 지향성이 분명히 존재한다.⁷⁾

지금까지의 사례들로부터 우리는 지향적 심적 상태의 일반적 특색을 추출해 낼 수 있다. 말하자면 지향적 심적 상태는 그 상태 자체와는 다른 그 무엇에 향해 있는, 혹은 그 무엇에 관한, 심적 상태이다. 지향성은 근본적으로 그와 같은 **(무엇에)향해 있음(directedness)** 또는 **(무엇에)관함(aboutness)**이다. 이로부터 우리는 지향적 상태의 한 가능한 기본 구조를 다음과 같이 특징지을 수 있다: (i) 지향적 상태의 소유자(지향적 주체), (ii) 지향적 상태의 심리학적 특질(지향적 양태), 그리고 (iii) 지향적 상태가 향해 있는 것(지향적 대상).⁸⁾

이렇게 이해되는 지향성은, 지향적 상태나 작용의 소유자—즉 어떤 특정한 인지 주체—로 하여금 그 주체와는 다른 어떤 사물, 대상, 사실, 사

7) 이는 브렌타노 류의 전통적 지향성 철학자들이 다소 간과한 점이다. (이 문제에 개입해 있는, 언어의 지향성과 정신의 지향성 사이의 병행성(parallelism)에 관한 논의로 필자의 줄고 「프레게에서 지시체 없는 뜻의 문제」를 참조하시오.)

8) 물론 이 서술이 지향성의 구조 문제에 관한 유일한 이론이나 입장은 아니다. 예를 들어 서얼은 ‘지향적 상태의 배경’을 정신의 지향성의 일반 구조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본다. (위에서 지향적 양태는 ‘봄’, ‘상상함’, ‘그리워함’, ‘믿음’, ‘소중히 여김’에서 그 각각의 심리 상태가 가진 고유한 질적 특성을 나타낸다.)

태, 또는 사태 복합을 지칭하고 표상하고 인식하게 한다. 더 나아가 지향성은 지향적 상태의 소유자의 행위와 행동을 일으키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위의 사례에서 당신이 숙희를 그리워하는 일은 당신으로 하여금 그녀에게 전화를 한다든가 혹은 편지를 쓰는 행위를 일으킬 수 있다. 숙희가 정말로 훌륭한 배우자가 될 것이라는 당신의 믿음은 다른 사람들이 숙희의 낭비벽을 비난할 때 그녀를 옹호하는 말과 행동을 야기할 수 있다. 이렇듯 지향성은 우리의 인식과 행위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에 지향성 이론은, 그것이 사실상 철학적인 것이든 또는 과학적인 것이든, 지향성을 소유하는 인지적 주체가 수행하는 인식과 행위의 근본 기제(fundamental mechanism)를⁹⁾ 원리적으로 이해하고 해명하는 데에 그 본질적인 의의가 있다.¹⁰⁾ 남아있는 중요한 문제는 그러한 지향적 현상의 근본 기제를 밝혀내고 해명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채용해야 하는 이론적·방법적 개념과 원리가 무엇일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이 글에서

- 9) 여기서 ‘기제(mechanism)’가 ‘인과적(causal) 기제’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10) 그런데 알갭게도 지향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이론 정립을 차단하는 여러 개념적인 오해들이 있다. 필자는 그들을 다음 세 유형으로 구분한다. 즉: (I) ‘지향성’이라는 낱말 혹은 용어와 관련한 언어적인 오해, (II) 지향성에 대한 특정한 이론적 태도(theoretical stance)에서 기인하는 오해, 그리고 (III) 지향성 자체의 속성이나 특질에 관련한 오해. (I)의 예는, 특히 영어에서 그렇듯이, 지향성을 ‘의도(intention)’라는 개념이나 용어의 일종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II)의 예는 지향성을 어떤 특정한 논리적·의미론적 관점에서 내포성(intensionality) 개념을 통해 정의하는 것이다. (III)의 예는 지향성을 의식(consciousness)을 통해 특징짓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다음 세 이론적 태도를 주장한다: (ㄱ) 의도는 특수한 유형의 지향성이다. 그러나 지향성이 그 자체로 의도와 동일한 것은 아니다. 의도는 지향성을 포함하지만, 모든 지향적 상태가 의도는 아니다. (ㄴ) 내포성은 특수한 종류의 지향성이다. 그러나 지향성이 그 자체로 내포성과 동일한 것은 아니다. 내포성은 특수한 형태의 지향성을 포함하지만, 그것이 다른 모든 형태의 지향성을 특징짓는 것은 아니다. (ㄷ) 여러 유형의 의식이 지향성을 수반한다. 그리고 여러 형태의 지향적 상태가 의식 상태이다. 하지만 비록 모든 의식 현상이 지향적 상태일 수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지향적 상태가 의식 상태인 것은 아니다. 말하자면 지향성과 의식은 동일한 것이 아니다. 지향성이 전적으로 의식 개념을 통해 정의될 수는 없다. 필자의 생각에, 지향성 이념과 관련하여 위에서 제시된 오해 (I)은 상대적으로 가장 용이하게 처리될 수 있다. 반면에 (II)는 다루기가 상당히 어려우며, (III)은 논란의 여지가 가장 많다.

필자가 주장하고자 하는 요점은 그러한 개념과 원리의 확보가 바로 브렌타노의 지향성 이념에 대한 반성적이고 비판적인 고찰에서 가능하다는 것이다.¹¹⁾ 다음 3장과 4장은 이 주장에 대한 해명이다.

3. 브렌타노의 지향성 이념에 대한 고찰

여기서 필자는 전통적인 철학자들이 지향성을 앞장에서 특징지은 방식대로만 이해했던 것은 아니라는 점을 먼저 지적하고 싶다. 이미 언급했듯이 브렌타노 자신은 필자가 2장에서 개진한 지향성 개념과는 다소 다른 지향성 개념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반복컨대, 일반 지향성 이론의 정립 문제와 관련하여 브렌타노 지향성 이념의 이론적 의의는 정확히 어떤 측면에서 또는 어떤 방식에서 드러나는가?

우리 논의의 출발점은 브렌타노의 『경험적 관점으로부터의 심리학』의 ‘지향적 내존’ 절이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그 절은 철학자들에 의하여 많이 인용되어 왔으므로 우리는 그것을 아주 진부하게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브렌타노의 그 구절을 자주 보아 왔다고 해서 우리가 그 인용문의 이론적 중요성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어떤 철학적 개념과 사상에 피상적인 방식으로 매우 친숙해 있는 일이 그 개념과 사상에 대한 바르고 깊은 이해에 도달했다는 것을 보증하지 않는 것이다. 이 점을 기억하면서 다음 인용문을 살펴보자:

11) 물론 지향성 이론가들이 지향성에 대한 브렌타노의 개념과 원리를, 부분적으로든 총체적으로든 또는 적극적인 방식에서든 소극적인 방식에서든, 검토하고 차용하는 일이 필연적으로 요청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러한 고려와 검토를 수반하지 않은 채 지향성 이론이 전적으로 새로운 개념과 원리를 통하여 성공적으로 정립될 수 있을지에 대하여 필자는 회의적이다. 반복컨대 여기에서 필자의 요점은, 지향성과 관련하여 브렌타노가 특정하게 견지하는 개념과 원리를 우리가 그대로 답습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향적 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브렌타노가 사용하는 개념과 원리에 대하여 지향성 이론가 각자가 보다 더 명확하고 고유한 나아가 창조적인 정립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며, 나아가 그와 같은 작업이 일반 지향성 이론의 수립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는 점이다.

모든 심적 현상은 중세 스콜라 학자들이 어떤 대상의 지향적 (혹은 심적) 내존(the intentional (or mental) inexistence)이라고 불렀던 것, 그리고 전적으로 애매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어떤 내용에로의 지칭(reference to a content), (어떤 외부 사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선 안 되는) 어떤 대상을 향한 정향(direction toward an object), 혹은 내재적 객관체(immanent objectivity)라고 부를 수 있는 것에 의해 특징지워진다. 모든 정신적 현상은, 비록 그들이 동일한 방식 속에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 자체 안에 어떤 것을 대상으로 포함한다. 현현(presentation) 안에서 그 무엇이 현현되고, 판단 속에서 어떤 것이 긍정되거나 부정된다. 또한 사랑 안에서 그 무엇이 사랑되고, 증오 안에서 그 어떤 것이 증오되며, 욕구 안에서 그 무엇이 욕구된다. 이러한 지향적 내존은 오로지 심적 현상에만 특징적이다. 어떠한 물리적 현상도 그와 같은 것을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심적 현상은 그 자체 안에 어떤 대상을 지향적으로 포함하는 그런 현상이라고 말함으로써 우리는 심적 현상을 정의한다.¹²⁾

위 인용문 전체의 내용적 연관성을 고려하면서 우리는 지향성에 대한 브렌타노 입론을 다음과 같은 두 테제로 특징지을 수 있다:

(ㄱ) 어떤 심적 작용이 있을 때 거기에는 언제나 그 심적 작용이 지향하는 어떤 대상 또는 내용이 존재하는 바, 그와 같은 대상 또는 내용은 정신 외부에 존재할 필요가 없다.

(ㄴ) 어떠한 물리적 현상도 그러한 대상 지향성이나 내용 지향성을 보이지 않는 데, 바로 그와 같은 지향성이 정신성의 유일하고 특별한 징표를 이룬다.

먼저 브렌타노 입론 (ㄱ)에 관하여 알아보자. 위에서 제시된 브렌타노의 지향성 입론의 본질적 특색은 지향적 상태가 향해 있는 것(즉 지향적 대상)이 정신으로부터 독립해 있는, 의식-초월적 또는 의식-외재적 실물

12) Brentano (1924) *Psychology from an Empirical Standpoint*, 88쪽-89쪽.

(entity)이 아니라 정신에 의존해 있는 의식-내재적 실물이라는 것이다. 이를 우리는 지향성의 본성에 대한 브렌타노의 내재주의(immanentism)라고 불러도 좋다.

브렌타노의 내재주의는, 기본적으로, 정신의 작동의 본성에 대한 데카르트의 입장에 그 철학적 원천을 두고 있다.¹³⁾ 데카르트에 따르면 심지어 정신 외부에 존재하는 사물들에 관한 지각과 인식에 있어서도 의심불가능하고 명증적인 것은 신체적 감각 기관을 통한 지각이라기보다는 정신과 사유를 통한 지각이다. 그래서 그 경우 우리가 일차적이고 직접적으로 의식하고 지각하는 것-즉 의식과 지각의 대상-은 외부 사물 자체라기보다는 정신 안에서 그 사물이 재현된 상(image)이나 내용(content)이다. 데카르트는 정신이 의식하는 그 상이나 내용이나 대상을 관념(idea)이라고 부른다. 그는 그러한 심적 내용 혹은 심적 대상의 실재성을, 사물 자체가 고유하게 갖는 형상적 실재성(formal reality)에 대비하여, 사유 주체의 의식 앞에 나타나는 표상적 실재성(objective reality)이라고 부른다.¹⁴⁾ 거기에서 가장 특기할만한 점은, 어떤 관념의 소유와 작동에 있어서 그 관념의 표상적 실재성 너머에 있는 실제 사물 자체의 존립은 필연적이지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데카르트 이후 포더(Fodor, Jerry 1935-)에 이르기까지 온갖 형태의 내재주의적 지향성 이론이 전제하고 옹호하는 이론적 공리인 것으로 보인다.¹⁵⁾

13) 이는 모란(Moran, Dermot)이 강조하는 브렌타노 해석이다. 필자는, 지금까지 제시된 브렌타노 지향성 이념에 관한 많은 해석 중 모란의 해석이 가장 적절하고 균형 잡혀 있다고 생각한다. (Moran (1995) "Brentano's Thesis 참조.)

14) 특히 Descartes (1642) *Meditations*, 3장 참조.

15) 필자는 브렌타노의 내재주의적(internalistic) 지향성 이념을 다음과 같이 특징짓는다: '지향적 상태의 소유는 그 지향적 상태가 정향해 있는 것의 사실적이고 외부적인 현존을 요구하지 않는다. 지향적 상태의 대상은 정신 속에 존립하는 심적 실물(entity)이다.' 이로부터 우리는 외재주의적(externalistic) 지향성 개념을 다음과 같이 서술할 수 있다: '지향적 상태의 소유는 그 지향적 상태가 정향해 있는 것의 사실적이고 외부적인 현존을 반드시 요구한다. 지향적 상태의 대상은 정신 바깥에 독자적으로 존립하는 물리적 사물이다.' 또는: '지향적 상태는 정신 외부에 독립적으로 실재하는 사물 자체를 통하여 성립한다. 즉 정신 바깥에 존립하

다음으로 브렌타노 입론 (L)에 관하여 살펴보자. 우리 국어에는 ‘정신’이라는 낱말에 관한 재미있는 용법이 있다. 이를테면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이나 약속을 잊었을 때 우리는 흔히 ‘정신이 없어서 그랬다’라고 답한다. 또한, 하는 일이 아주 많아 바쁜 상황에 있을 때 우리는 보통 ‘정신이 없다’고 말한다. 이는 ‘제 정신을 잃다’ 혹은 ‘정신에 이상이 생겼다’라는 뜻의 영어 표현 ‘out of mind’와는 그 의미가 사뭇 다르다. 여기서 이렇게 물어보자: 정신이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정신을 소유한다는 것은 무엇과 같은 것인가? 물음의 외관적 단순성과는 달리 이들은 난해한 철학적 문제이다. 우리는 그 물음들을 다음과 같이 바꾸어 표현할 수 있다: 정신이 가진 어떤 특성으로 인하여 그 정신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존재하는 그 무엇이 되는가? 정신을 소유한다는 것을 다른 것이 아닌 바로 그 정신을 소유하는 것으로 만들어 주는 어떤 근본적인 징표나 특성이 무엇일까? 브렌타노 입론 (L)은 바로 이러한 물음들에 대한 답변이다. 특기할만한 점은 지향성에 대한 그러한 시각이 데카르트가 정신의 본성을 사유라고 특징지은 이래 정신성의 새로운 정의를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¹⁶⁾

그런데 브렌타노의 내재주의적 지향성 이념은 한 심각한 난점을 갖는

는, 즉자적 사물 자체가 지향적 상태를 본질적으로 구성한다.’ 이른바 외재주의적 지향성은 그 이론이 아직 잘 정립되어 있지 않다. 현상학적 전통에서는 아마도 하이데거(Heidegger, Martin 1889-1976)와 메를로-퐁티(Merleau-Ponty, Maurice 1908-1961)가 그 입장에 속할 것이다. 흥미롭게도 『논리 연구』에서 후설의 지향성 이론은 외재주의적인 성격을 갖지만 『이념 I』 이후의 저작에서는 ‘초월론적(transcendental) 현상학’이라는 이름하에 내재주의가 강조된다. 하지만 소위 ‘발생적 현상학’을 제시하는 그의 미간행 수고에서는 정신의 지향성에 개입된 어떤 형태의 외재주의적 요소가 여전히 존재한다. 분석적 전통에서는 밀리칸(Millikan, Ruth 1933-)이 그 관점을 명시적으로 옹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서얼이나 드레츠키(Dretske, Fred 1932-)의 지향성 이론도 부분적으로 그러한 외재주의적 요소를 갖고 있으나, 이는 좀 더 주의 깊게 논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16) 하지만 동시에 그 관점은 어떤 물질적·자연적 기능으로서의 지향성 이념을 차 단해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신성의 특별한 징표로서의 지향성 이념을 수용할 것인지 또는 거부할 문제는, 궁극적으로 한 특정한 지향성관과 세계관을 산출한다는 점을 우리는 주의 깊게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 단적으로 말하여, 위의 브렌타노 입론 (ㄱ)은 **관념론**으로 그리고 입론 (ㄴ)은 **이원론**으로 귀착할 위험이 있다. 물론 지향성 이론에서 내재주의 자체가 관념론과 이원론을 필연적으로 함축하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그렇게 함축되는 관념론과 이원론이 어떠한 이론적 의의도 갖지 않는 전적으로 거짓된 철학적 교설이라는 말도 그리 타당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난점은, 만일 우리가 관념론과 이원론을 수용하기 어려운 철학적 교의라고 결론내리는 경우, 특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난다.

그 점을 가장 분명하게 파악한, 그러나 매우 극단적으로 평가한, 철학자가 바로 콰인이다. 그는 이렇게 쓰고 있다:

우리는 브렌타노의 [지향성] 테제를 지향적 관용구들(intentional idioms)의 필요불가결성과 의도(intention)에 관한 자발적 과학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수용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테제를] 지향적 관용구들의 무근거성 및 의도에 관한 과학의 공허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지향성 테제에 관하여] 브렌타노와는 달리 나의 태도는 후자이다.¹⁷⁾

콰인의 브렌타노 비판은 과연 정당한가? 필자는 정신의 지향성에 관한 콰인의 입장에 이중적인 평가를 내리고 싶다. 한 편으로, 브렌타노의 지향적 내재주의가 관념론과 이원론으로 귀결할 수 있으며 또한 그와 같은 귀결이 우리 시대의 자연주의적 세계관과 부합하지 못한다는 시각에서 콰인의 입장은 부분적으로 수긍할만하다. 다른 한편으로, 그러나, 그러한 난점이 있다고 해서 지향성의 실재성을 극단적으로 부인하는 콰인의 입장은 설득적이지 못하다. 스킨너(Skinner, Burrhus Frederick 1904-1990)나 콰인 류의 행동주의에 대한 반동에서 기인하고 촘스키(Chomsky, Noam 1928-) 언어학의 영향을 받아 새롭게 전개된 인지과학의 발전과 1970년대 후반 이후 분석철학 자체 내에서 발생한 심리철학의 증흥은 콰

17) Quine (1960) *Word and Object*, 221쪽. 여기서 콰인은 ‘의도’ 개념과 ‘지향성’ 개념을, 의도적으로든 비의도적으로든, 명확하게 구별하지 않는다. 그는 ‘intention’이라는 표현을 통하여 지향성(intentionality) 일반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인의 지향성관이 매우 일면적이었음을 방증하고 있다.

그런데 콰인과 동시대에 그리고 동일한 철학 전통에서 브렌타노 이론에 대한 호의적인 이해가 있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바로 치즘(Chisholm, Roderick 1916-1999)이 그런 시각을 견지한다.¹⁸⁾ 그는 정신의 작용과 그 작용에 연합된 내용이 결코 외연적(extensional)일 수 없다고 본다. 즉 정신의 작용과 그 작용에 결부된 내용을 나타내는 언어적 표현들의 행태(behavior)는 존재 일반화 또는 대체율과 같은 외연성 원리에 종속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와 같은 표현들은 비외연적 즉 내포적(intensional)이라고 규정된다. 이 측면에서 치즘은, 내포성이 정신적인 것의 특별한 표지로서의 지향성을 근거지우는 정의적(definitional) 특징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¹⁹⁾ 내포성을 통하여 지향성을 이해하기 그리고 그러한 지향성을 정신적인 것의 표지로 간주하기-이는 중요한 철학적 이념들의 흥미로운 결합이다.²⁰⁾ 그러한 지향성 이해가 옳은 것이었든 아니면 그릇된 것이었든, 콰인과 대비되어 치즘은 브렌타노 지향성관의 현대적 옹호자로 간주된다.

여기에서 특기할만한 점은, 현대 분석철학 전통에서의 지향성 논의는 콰인과 치즘의 입장 중 하나를 채택하거나 또는 그 두 입장을 양립시키려는 방향에서 이루어져 오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전자의 방향은 상

18) 정신의 지향성에 대한 치즘의 고전적인 논문, 특히 Chisholm (1952) "Intentionality and the Theory of Sign" 과 Chisholm (1957)에서 "Intentional Inexistence" 를 참조하십시오.

19) 물론 내포적인 것이면 무엇이든 지향성의 정의적 특징으로 여겨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단적인 예로 양상(modal) 개념과 문맥은 지향성과 직접적 관련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이 문제는 좀 더 심층적으로 탐구될 필요가 있다.

20) 이 점과 관련하여 어떤 철학자들은 치즘의 브렌타노 해석이 그릇된 것이라고 본다. (Moran (1996) 참조) 여기에서 제시되는 논점과 관련하여 크레인(Crane, Tim)은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브렌타노는 지향성을 심리적 문맥의 내포성을 통하여 특징짓지 않았다. 그러므로 치즘이 1950년대에 [지향성에 대한] 브렌타노의 사상을 영미철학계에 소개했을 때 그가 지향성을 내포성의 기준을 통하여 정의했다는 것은 다소 불가사의하다. (...) [그러나] 지향성과 내포성의 이념들은 서로 별개이며 그들은 각각 상이한 [개념적] 기원을 가지고 있다. (Crane (2001) *Elements of Mind*, 12쪽.)"

당히 극단적인 관점-예컨대 제거주의 또는 이원론-에 귀착하므로, 많은 철학자들이 후자의 방향을 선호한다. 필자가 보기에 그것은 근거 있는 선호이다. 필자는, 콰인의 자연주의적 입장의 토대 위에서 지향성의 실재성을 확보하고 그것을 이론화시키는 일이 미래의 지향성 이론이 충족시켜야 할 기본 요건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일반 지향성 이론의 정립 문제와 관련하여 방금 위에서 제시된 요점이 브렌타노 지향성관에서 철학자들이 추출할 수 있는 유일한 교훈은 아니다. 앞에서 이미 인용한 ‘지향적 내존’ 절을 이 지점에서 다시 상기해 보자. 필자는, 지향성 이념의 한 패러다임을 보여주는 그 인용문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가 그에 관한 일단의 철학적 물음들을 체계적이고 분명하게 정식화함을 통해 더 잘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주의해야 할 점은, 그 물음들이 단지 임의적으로 혹은 한갓된 역사적 재평가를 위하여 제기되는 것이 아니라 필자가 앞에서 언급했던 지향성 이론의 정초 문제의 배경에서 지향적 상태의 일반 구조에 대한 이론적 고려와 함께 비롯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그렇다면 어떤 물음들이 제기될 수 있을까? 앞에서 우리는 지향적 상태의 한 가능한 일반 구조가 (I) 지향적 상태의 소유자(지향적 주체), (II) 지향적 상태의 심리학적 특질(지향적 양태), 그리고 (III) 지향적 상태가 향해 있는 것(지향적 대상)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았다. 이에 필자는 그러한 지향적 상태의 일반 구조의 관점 하에서 브렌타노 ‘지향적 내존’ 절에 관련한 물음들을 다음 세 부류로 나누어서 제시한다:²¹⁾

아마도 가장 우선적인 물음의 부류는 다음일 것이다: **(가) 부류 - 지향적 상태의 대상에 관한 물음:** ① 브렌타노는 지향적 심적 현상을 “어떤 대상의 지향적 (혹은 심적) 내존(the intentional (or mental) inexistence)”, “어떤 내용으로의 지칭(reference to a content)”, “(어떤 외부 사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선 안 되는) 어떤 대상을 향한 정향

21) 물론 여기서 제시되는 물음 이외에도 다른 많은 이론적 문제들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direction toward an object), 그리고 “내재적 객관체(immanent objectivity) 로 특징짓는다. 지향성을 정의할 목적으로 브렌타노가 제안하는 이 네 개념들은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가?22) ② 특히 “대상”, “내용”, 그리고 “객관체” 라는 표현을 통해 브렌타노는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들은 서로 대체 가능한 동등 개념인가? 혹은 브렌타노는, 많은 현대 지향성 철학자들이 그러듯이, 지향적 상태의 내용과 지향적 상태의 대상 사이의 분명한 이론적 구별을 짓고 있는가?23) ③ 어떤 존재자들이 지향적 대상이 될 수 있는가? 즉 지향적 대상이 될 수 있는 존재론적 후보들은 무엇일까? 나아가 지향적 대상은 발견되는 것인가, 구성되는 것인가, 아니면 창조되는 것인가?

그런데 놀랍게도, 브렌타노는 말년에 이르러 지향적 대상의 성격에 관한 초기의 입장을 급진적으로 수정한다. 이는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던 중요한 사실이다. 그의 사후에 발간된 『경험적 관점으로부터의 심리학』 2판 서문에서 브렌타노는 이렇게 선언한다:

가장 중요한 혁신 중의 하나는 지향적 심적 관계가 그 대상으로서 [구체적이고 특수한] 사물(Reales; a thing)과 다른 그 무엇일 수 있다는 의견을 내가 더 이상 견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24)

말년의 브렌타노의 관점을 고려하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추가적 물음

22) 정신의 지향성을 정의할 목적으로 브렌타노가 제시하는 이 네 개념들은 사실상 서로 동등하다고 간주된다. 이 점은 브렌타노가 그의 전 시기에 걸쳐 지향적 심적 작용의 ‘내용’과 ‘대상’에 대한 명확한 구별을 결코 짓지 않았다는 사실을 통하여 지지받고 있다. 물론 이 해석에 반대하는 이도 있지만(예컨대 Spiegelberg (1936) “‘Intention’ and ‘Intentionality’ in the Scholastics, Brentano, and Husserl” 참조), 다수의 브렌타노 학자들은 그것이 올바른 해석이라고 본다.

23) 이 문제와 관련하여 현상학적 전통에서 트바도브스키는 지향적 상태의 ‘작용’과 ‘내용’과 ‘대상’을 구분한다. 분석적 전통에서도 많은 지향성 이론가들이 ‘지향적 대상’과 ‘지향적 내용’을 구분한다. 하지만 ‘지향적 내용’의 기능과 특성이 정확하게 무엇인지의 문제에 관하여 많은 논란이 있다. 본 논문 각주 (25) 참조.

24) Brentano (1924) 서문 xx[20]쪽 참조.

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지향적 심적 상태의 대상으로서의 “사물은 정확히 무엇인가? 그것은 의식-외재적인 구체적이고 특수한 개별자로 보인다. 과연 진정 그러한가? 무엇이 브렌타노로 하여금 지향적 대상의 성격을 그토록 근본적으로 바꾸도록 만들었는가? 만일 심적 작용의 대상이 정신 바깥의 구체적이고 특수한 개별자라면, 정신은 이를테면 여러 형태의 비(non)-사물들 즉 사실, 사태, 추상적 실물을 어떻게 표상하는 것일까? 나아가 정신은 비현존적 대상물을 어떻게 표상하는가?

(가) 부류의 물음에 대한 고려와 함께 우리는 다음 문제를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나) 부류 - 지향적 상태의 양태에 관한 물음: ① 모든 심적 현상이 지향적인가? 달리 말해, 지향성 내지 정향성에 아무런 관련이 없는 심적 현상이 존재하는가? 만일 그런 심적 현상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② 오직 심적 현상만이 지향적인가? 생물학적 현상을 포함하여 어떤 물리적 현상 또는 물리적 체계가 지향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가? ③ 브렌타노는 “현현 안에서 그 무엇이 현현되고, 판단 속에서 어떤 것이 긍정되거나 부정된다. 또한 사랑 안에서 그 무엇이 사랑되고, 증오 안에서 그 어떤 것이 증오되며, 욕구 안에서 그 무엇이 욕구된다. 고 말한다. 여기에서 그는 심적 현상의 일반적인 지도를 그리고 있다. 왜 그리고 무슨 근거에서 모든 심적 현상들이 세 유형-즉 현현, 판단, 그리고 사랑과 증오의 현상-으로 분류되는가? 과연 그것은 심적 현상에 대한 올바른 범주화인가? 지향성 개념을 기반으로 하여 그려지는 심적 작용 일반의 올바른 지도는 무엇과 같을까? 그러한 범주화를 가능하게 하는 각각의 심적 작용 유형의 지향적 특질은 무엇일까? 예컨대 감각과 지각과 믿음과 판단에 내재하는 지향적 작용의 공통 속성과 차이 속성은 무엇일까?

이제 다음 문제를 고찰해보자. (다) 부류 - 지향적 상태의 주체에 관한 물음: ① 감각, 지각, 상상, 믿음, 욕구, 판단, 사유 등과 지향적 상태와 관련하여 그러한 지향적 상태 일반이 ‘지향적 내존’으로 정의된다면, 정확히 무엇이 또는 어떤 유형의 존재가 그러한 지향적 상태의 소유자가

될 수 있는가? 즉 지향적 주체가 될 수 있는 존재자의 범위는 어떠할까? 이른바 정상적 성인을 제외한 존재자들-이를테면 아기 또는 인간 이외의 동물들-은 지향성을 소유하고 있는가? ② 앞의 물음에 관련하여 지향적 상태의 소유자와 비소유자를 구분하는 정확한 기준은 무엇일까? ③ 위 물음에 대하여 이른바 자연주의적 시각과 비자연주의적 시각으로부터의 답변이 다르다면 과연 어느 답변이 더 수긍할만한가?

이 모든 물음들에 대한 어느 한 체계적이고 **완결된** 답변이, 비록 가설적이라 할지라도, 무엇일 수 있을까? 지금 우리는 큰 난관에 봉착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글쎄, 이 지점에서 필자는 독자들에게 본 논의가 실제로 의도하는 미묘한 요점을 정확하게 인식하도록 요청하고자 한다. 즉 이 논문에서 필자가 수행하는 중심 작업은 위 물음들에 답변을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일이 아니다. 말하자면 위 물음들에 대한 한 총체적인 답변을 제시하는 일은, 필자가 보기에, 일반 지향성 이론 정립과 관련한 실질적 작업이다. 반면에 이 글에서 필자가 수행하는 일은 그러한 실질 작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준비 작업이다. 이에 필자는, 낡고 진부한 것으로 자주 간주되는 브렌타노의 지향성 이념에서 추출될 수 있는 이론적 물음들이 일반 지향성 이론의 정립과 관련하여 정확하게 무엇일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정식화하고 그것을 지금 독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러한 정식화는 지향성 이론-특히 그것이 한 일반 이론일 경우 또는 그런 이론을 목표로 하는 경우-이 충족해야 하는 이론적 제약 조건에 관여한다. 요점은, 그 이론적 제약 조건의 일부가 브렌타노의 지향성 이념에 연계된 여러 개념과 용어와 원리에 대한 참조와 물음을 통해 실질적으로 밝혀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필자는 바로 그러한 시각에서 브렌타노 지향성 이념의 중대한 의의를 발견한다. 브렌타노의 진부한 지향성관은, 이렇게, 새로운 일반 지향성 이론 정초의 시각에서 그 의의가 오히려 생생하게 드러날 수 있다.

브렌타노 이후의 지향성 철학자들은-특히 현상학적 전통의 경우-위 물음들에 대한 답을 암시적으로 또는 명시적으로 제시하는 과정에서 그 자신의 고유한 지향성 이론을 산출해왔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하지만 서양 현대

철학에서-분석적 전통에서든 혹은 현상학적 전통에서든-앞의 물음들에 대한 한 체계적이고 완결된 답변은 아직도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필자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그 사실이 현재와 미래의 지향성 이론가들에게 실망과 좌절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도전과 격려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이다.

4. 나가는 말

독자에게 이 글에서 필자의 논의는, 물음을 제기하되 그 답변을 명시하지 않는 어떤 미완결적인 것으로 보일지 모른다. 과학적인 이론이든 철학적인 이론이든, 그러나, 어떤 현상에 대한 일반 이론의 수립에 있어서 그 이론을 정립하기 전에 그것이 우선 전제해야 할 개념과 원리와 문제를 분명하게 정식화하는 일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것 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의심할 바 없이, 일반 지향성 이론의 정립을 위하여 우리가 수행해야 할 첫 번째 작업은 다양한 지향적 현상을 확인하고 고찰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확인과 고찰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지향성에 연계된 기본적인 개념과 원리와 언어이다. 한 심각한 난점은, 적어도 지향성 문제에 관한 한, 우리가 여전히 많은 개념적·원리적·언어적 혼란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이다. (이들테면 단적인 예로 ‘지향적 대상’의 이념을 고려해 보라. 그것은 의식-내적인 심적 실물인가? 또는 의식-외적인 물리적 사물인가? 현존하는 여러 지향성 이론에서 ‘지향적 대상’의 개념은 심지어 모순적 이해의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유사한 요점이 ‘지향적 내용’의 개념에도 적용된다.) 그러한 혼란을 제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은, 문제시되는 현상에 접근하는 이론적 도구를 보다 더 명료하게 만드는 일이다. 거기에서 흥미로운 점은 그러한 명료화 자체가 일반 이론 정립의 한 부분을 구성한다는 것이다.

논의를 마무리하자: 이 논문에서 필자의 논점은 지향성 이론 일반이 다루고 해명해야 할 여러 근본적인 이론적 개념과 원리와 문제를 브렌타노의

지향성 이념에 대한 비판적이고 반성적인 고찰을 통하여 제시하는 것이었다. 이에 2장에서 제기된 일단의 여러 문제에 어떤 한 체계적이고 완결된 답변을 제공하는 일은 일반 지향성 이론의 정립을 향한 틀(framework)을 확보하는 일에 상당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브렌타노의 지향성 이념은, 그 자체의 타당성 여부와는 별도로 그러나 지향성 이론 일반의 확고한 정립에 긴밀하게 관여하는 기본적 이론 조건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방식에서 그 궁극적 의의가 드러난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또한 바로 그 점이, 지향성 철학자라면 누구든 브렌타노의 입장과의 대면과 극복 속에서 그 자신의 이론이 공고해 질 것이라는 주장의 요체이다. 필자는 브렌타노 지향성 이념의 현재와 미래를 바로 그러한 시각을 통해 보고 있다.²⁵⁾²⁶⁾

(동국대학교)

- 25) 지금까지의 논의와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필자는 브렌타노의 지향성 이념에 대한 다음 두 중대한 반-브렌타노적인(anti-Brentanian) 입론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 필자는 지향성이 정신성의 유일하고 독특한 징표라는 주장이 일반 지향성 이론의 정립 문제와 관련하여, 적어도 방법적으로, 유보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필자가 보기에 브렌타노의 그 주장은 여러 다양한 지향적 현상을 규명하는데 있어서 오히려 방해가 되어 왔으며 또한 지향적 주체의 범위를 인간에게만 제한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 점에서 필자는, 만일 지향성이 실재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어떤 자연적이고 물질적인-특히 생물학적인-속성과 현상임에 틀림없다는 최근 입론에 주목한다. 앞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우리는 종종 그 시각을 ‘지향성을 자연화하려는 시도’라고 부른다. 필자는 그 철학적 이념과 교의를 적어도 부분적으로 수용한다. 필자는 지향성의 자연화의 핵심이 그 소극적인 면에서는 정신의 지향성에 결부된 불필요하게 신비로운 성격들을 제거하는 데에 놓여 있으며, 그리고 보다 더 적극적인 면에서는 지향성이라는 기능과 속성을 구현하는 물질적인-나아가 물리적인-토대를 찾는 것에 놓여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필자는, 어떤 특정한 유형의 지향적 상태가 정신성의 징표일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지만, 모든 지향적 상태가 그 자체로 정신성의 독특한 표지라고 간주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둘째, 필자는 지향적 상태가 향해 있는 것(지향적 대상)이 동종적(homogeneous)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종적인(heterogeneous) 것이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지향적 대상을 ‘지향적 상태가 관여하는 것(what an intentional state is about)’ 또는 ‘지향적 상태가 향해있는 그 무엇(something upon which an intentional state is directed)’이라고 이해한다. 이 점에서 필자는 지향적 대상을 적절하게 이해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그러한 대상의 실질적-존재론적(substantial-ontological) 개념과 도식적-논리적(schematic-logical) 개념이 구분되는 것이라고 본다. 현대 지향성 철학자들이 여전히 논란중인 ‘지향적 내용’은 후자에 더 연관

참고문헌

- 김영진 (2006). 「후설 노에마에 대한 헬레스달의 해석」, 철학과 현상학 연구, 제28집, 39-63.
- _____ (2007). 「프레게에서 지시제 없는 뜻의 문제」, 철학과 현상학 연구, 제34집, 115-141.
- _____ (2008). 「지향적 대상의 이중성과 현상학-해석학의 대답」, 해석학 연구, 제21집, 59-83.
- 박찬영 (1992). 「브렌타노의 지향성」, 철학과 현상학 연구, 제6집, 161-198.
- Brentano, F. (1924). *Psychology from an Empirical Standpoint*, English Tr.

하는 것으로 보이며, 바로 그런 의미에서는 ‘지향적 대상’의 이념과 ‘지향적 내용’ 개념이 뚜렷하게 구별되지 않는다. 필자가 보기에 지향적 대상의 본성에 관한 논쟁과 대답은 어느 한 특정 유형의 지향적 경험에서 추출된 지향적 대상의 이론을 그 외의 여러 다른 유형의 지향적 경험에 무리하게 적용하거나 혹은 성급하게 일반화하려는 경향에서 주로 나타난다. 이에 지향성 이론 정립과 관련하여 필자는, 인지 주체가 직접 파악하는 의식-내재적 심적 실물만이 인식적 명증성의 진정한 기준을 충족시킨다는 데카르트적 요청을 수용하지 않는다. 이 점을 바탕으로 필자는 지향적 대상이 될 수 있는 실물들의 부류를 다음 셋으로 나눈다: (i) 의식-내재적 실물들, (ii) 의식-외재적 실물들, 그리고 (iii) 혼성적(hybrid) 실물들. 부류 (i)에는 관념·표상·(현존하는 사물에 대한)그림적 표상·(비현존하는 대상물에 대한)상상적 표상 등이 속한다. 부류 (ii)에는 개별적인 물리적 사물·사실·일단의 사실들·전체로서의 사실 세계·자연 언어 기호 등이 속한다. 끝으로 부류 (iii)에는 개념이나 명제와 같은 내포적 실물·속성·보편자·추상적 존재자·가능 사태·가능 세계 등이 속한다. 필자는 방금 언급된 각각의 실물이 모두 인지적 주체의 심적 상태가 지향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본다. (필자의 줄고 「지향적 대상의 이중성과 현상학-해석학의 대답」 참조.) 그러면 방금 제시된, 필자의 두 반-브렌타노적 입론을 충족시키는 일반 지향성 이론이 무엇과 같을까? 아마도 그것은, 지향적 상태의 주체와 내용과 대상이 중층적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을 충실하게 반영하는 일종의 계층적 지향성 이론(a level theory of intentionality)일지도 모른다. 필자는 현재 그 이론을 구상중이다.

- 26) 이 논문의 초안은, “마음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라는 제목의 2007년 중앙 철학연구소 및 뇌과학 인지행동연구소 공동연구발표회에서 읽혀졌다. 그 학술 대회에서 함께 토론했던 여러 선생님들 및 그 발표 논문의 논평자였던 김효은 선생님께 감사한다. 또한 이 학술지의 익명의 심사위원들께도 감사한다.

- (1973) by A. C. Rancurello, D. B. Terrell, and L. L. McAlister.
New York: Humanities Press.
- Chisholm, R. (1952). "Intentionality and the Theory of Sign", *Philosophical Studies*, 4.
- _____ (1957). *Perceiving*,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_____ (1967). "Brentano on Descriptive Psychology and the Intentional", In Lee and Mandelbaum (eds.), *Phenomenology and Existentialism*,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Crane, T. (2001). *Elements of Min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Descartes, R. (1642). *Meditations on First Philosophy*, in J. Cottingham, R. Stoothoff, and D. Murdoch, (eds.) *The Philosophical Writings of Descartes, Volume II*,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ield, H. (1978). "Mental Representation", *Erkenntnis* 13, No. 1.
- Fodor, J. (1987). *Psychosemantics: The Problem of Meaning in the Philosophy of Mind*, Cambridge Mass.: MIT Press.
- Jacquette, D. (2004). *The Cambridge Companion to Brentano*,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cAlister, L. (ed.) (1976). *The Philosophy of Brentano*, London: Duckworth.
- Moran, D. (1996). "Brentano's Thesis", *The Aristotelian Society, Supplementary Volume LXX*.
- Quine, W. V. O. (1960). *Word and Object*, Cambridge Mass.: MIT Press.
- Spiegelberg, H. (1936). "'Intention' and 'Intentionality' in the Scholastics, Brentano, and Husserl", in McAlister, L. (ed.) (1976).
- Twardowski, K. (1894). *On the Content and Object of Presentations*, English Tr. (1977) by R. Grossmann, The Hague: Martinus Nijhoff.

Brentano in the Context of Laying the Foundation for Constructing a Theory of Intentionality

Kiem, Youngjin

In contrast to the claim that Brentano's view of intentionality is obsolete and even implausible, in this paper the author takes it that the matter as to how we face up to, understand, and interpret Brentano's notion of intentionality significantly determines the basic framework of, and the foundation for, constructing a general theory of aboutness. This amounts to saying that philosophers who want to build a theory of intentionality need to carefully re-examine Brentano's view of intentionality in his own way and perspective. Thus seen the task of the present paper is not to directly judge whether or not Brentano's theory of intentionality is plausible but rather to shed some light on the central tenets of his theory in a critical yet reflexive way, mainly so as to lay the firm basis for building a general theory of intentionality. The author tries to perform the task by means of formulating a group of theoretically crucial questions associated with the famous intentionality passage in Brentano's book *Psychology from an Empirical Standpoint*.

Key Words: intentionality, aboutness, a general theory of intentionality,
Brentano

김영진 e-mail: phi.kiem@gmail.com